

최근 비(非)달러화 석유거래 증가의 시사점

오정석 | 전문위원(3705-6231)

- [이슈] 최근 **反서방** 진영을 중심으로 비달러화(non-dollar) 석유거래가 증가.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'달러 기반 석유거래(Petrodollar) 시스템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 현황과 의미를 점검
- [현황] 러시아가 비달러화 석유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 일부 산유국들도 달러 일변도 거래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. 사우디와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공식 논의 중
 -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로 부상했으며, 민간 정유사들 (일명 teapots)을 중심으로 위안화 결제 석유거래가 확대
 - 러시아산 석유의 또다른 핵심 고객인 인도는 서방의 러시아산 유가상한제 실시 이후 UAE 디르함과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대금을 결제
 - 이란, 이라크, 브라질, 베네수엘라, 파키스탄 등도 비달러화 석유거래에 나선 가운데 사우디와 중국은 위안화 기반 석유거래를 전향적인 입장에서 논의 중
- [배경 및 평가] 비달러화 석유거래 증가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**反서방국들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, 아직 페트로달러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어 예의주시할 필요**
 - 러시아는 ▲SWIFT 배제 ▲외환보유고 및 자산 동결 ▲美·유럽 금융시장 접근 차단 등 석유 대금의 달러 결제 채널이 봉쇄됨에 따라 비달러화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
 - 여타 산유국들은 ▲서방과의 마찰 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 ▲미국이 추진하는 석유 담합금지 법안(NOPEC)에 대한 반발 ▲경제관계 변화 등으로 비달러화 석유거래를 추진
 - 그러나 ▲달러가 필요한 산유국들에게 석유판매는 거의 유일한 달러 수입원이라는 점 ▲견고한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 ▲국제통화로서 위안화의 한계 등으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근간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
 - 다만, 비달러화 석유거래의 양상이 과거와 다르고, 사우디와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일부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장기적 관점에서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
- [시사점] 비달러 석유거래 증가는 국제석유시장은 물론 글로벌 정치·경제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그 파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
 - ▲국제석유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훼손 ▲궁극적으로 달러화 위상과 기축통화 논쟁 촉발 ▲서방과 反서방 간 대립 심화 및 경제블록화 가속화 등에 유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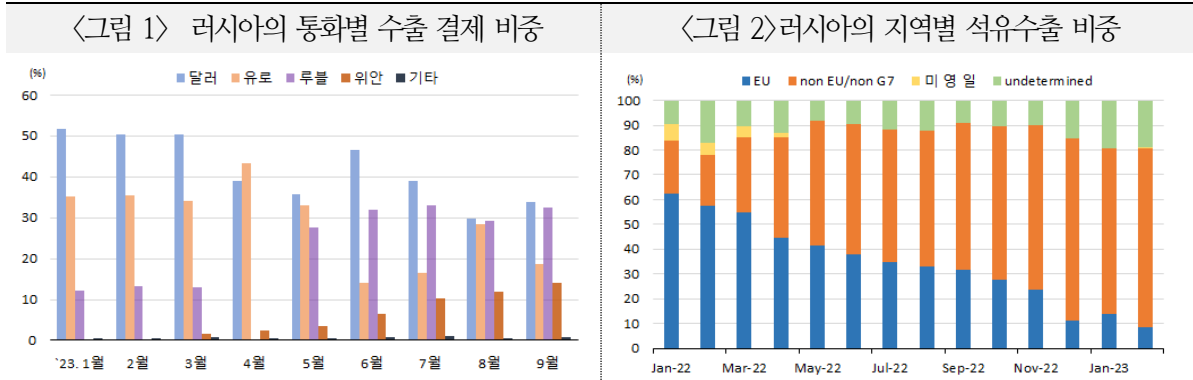
□ [이슈] 최근 **反서방 진영을 중심으로 비달러화(non-dollar) 석유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.**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‘달러 기반 석유거래 (Petrodollar) 시스템’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 **현황과 의미를 점검**

- 1945년 미국-사우디의 협약(※美는 군사안보 보장, 사우디는 석유거래 통화로 달러화 사용)을 통해 탄생한 페트로달러 시스템은, '70년대 중반 사우디가 석유판매로 얻은 대규모 달러 보유액을 美 국채에 투자하는 ‘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’에 나서면서 공고화
- 그러나,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 등이 비달러화 석유거래를 늘리는 가운데 사우디가 이에 동참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오랜 기간 국제석유거래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해 온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 제기
 -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훼손은 단순한 거래 통화의 교체를 넘어 국제석유시장과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내포

□ [현황] 러시아가 비달러화 석유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**중동 등 일부 산유국들도 달러 일변도 거래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.** 사우디와 중국은 **위안화 결제를 공식 논의 중**

-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로 부상했으며, 대부분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
 - 중국 1~2월 러시아산 석유수입은 하루 194만배럴로 전쟁 직전인 전년동기보다 24% 증가(※같은 기간 중 사우디산 수입은 하루 172만배럴로 -5%). 3월 러시아산 수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
 - 러시아는 기존 항로(유조선)와 ESPO(송유관) 외에도 새로운 항로 개척을 통해 중국에 대한 석유공급을 더욱 늘리겠다는 입장
 - 중국 민간정유사들(일명 teapots)이 주로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러시아와 중국은 위안화 석유거래를 확대하고 있으며, 석유수익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국부 펀드는 보유자산 중 위안화 비중 상한을 30% → 60%로 상향(Business Insider, WSJ)
 - 석유 포함 러시아 총 수출 중 위안화 결제 비중, 전쟁前 0.4% → 작년 9월 14%(CBR)
- 러시아산 석유의 또다른 핵심 고객인 인도 역시 달러 외 통화로 수입대금을 결제
 - 인도의 러시아산 수입은 '22년 3월 하루 6.8만배럴에 불과했으나 금년 3월에는 하루 143만배럴로 1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(※금년 3월 기준 러시아 원유수출의 91%를 인도와 중국이 차지. Anadolu Agency)
 - 인도는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실시 이후 대부분 석유 수입대금을 UAE 디르함과 러시아 루블화 등 비달러화로 결제했으며, 그 규모는 수 억달러로 추산(Reuters)

- 러시아와 인도의 은행들은 대금 결제용 계좌를 상호 보유하고 있으며, 양국 은행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도 검토. 아울러 인도는 루블화 거래가 제재로 막힐 경우에 대비하여 루피화 결제 방안도 강구(Reuters)



자료: Russia Central Bank

자료: Bruegel

-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란과 달러 보유액이 부족한 이라크, 파키스탄 등도 비달러화 석유거래에 나선 상황

〈표 1〉 기타 비달러화 석유거래 현황

산유국	상대국	비고
이란	EU	• '12년 핵 개발 관련 美 제재(secondary boycott) 강화 이후 유로화 결제 확대
	인도	• 이란은 '16년 유로화 결제를 선언. 인도는 '19년 루피화 결제로 변경
	중국	• '12년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
이라크	중국	• 금년부터 석유 등 모든 무역거래에 위안화 결제 허용
	러시아	• 석유거래 결제 시 우호국 통화 사용 협의(※이라크 내 4개 러 석유기업 활동 중)
러시아	파키스탄	• 금년부터 첫 석유거래를 시작하고, 결제는 우호국 통화를 사용
브라질	중국	• 금년 3월말 석유를 포함한 무역거래에 위안화 결제 합의
베네수엘라	중국	• 말레이시아를 경유함으로써 美 제재 회피, 결제는 위안화 사용 추정

자료 : 각종 외신 종합

-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와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 중국은 위안화 기반 석유거래를 전향적인 입장에서 논의 중
 - 사우디와 중국 간 관련 논의는 '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, 금년 들어서는 국영 아람코社의 유가 결정모델에 위안화 원유선물계약* 포함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

*중국은 '18년 3월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(INE)에서 위안화 원유선물 거래를 시작

□ [배경 및 평가] 비달러화 석유거래의 증가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반서방국들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, 아직 페트로달러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어 예의주시할 필요

○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금융제재로 비달러화 석유거래가 불가피. 다른 산유국들은 상황에 따라 향후 서방의 금융제재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영향

-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▲국제결제망(SWIFT) 배제* ▲외환보유고 및 자산 동결 ▲美·유럽 금융시장 접근 차단 등으로 석유 등 에너지 대금의 달러 결제 채널이 봉쇄됨에 따라 비달러화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
- 러시아산 원유가 큰 폭으로 할인*되어 거래됨에 따라 수입국들은 ▲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 ▲무역수지 개선(※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은 국제 시세로 수출) 등 경제적 이유로 기꺼이 러시아의 비달러화 거래를 수용

*전쟁 전 러시아 Urals 가격은 브렌트유 대비 -\$1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-\$25~-20에서 형성

- 여타 산유국들은 ▲서방과의 마찰 시 러시아와 같은 금융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 ▲미국이 추진하는 NOPEC*(석유담합금지 법안) 및 ‘달러의 무기화’에 대한 반발 ▲경제관계 변화(中 의존도 증가, 美는 감소) 등으로 비달러화 석유거래를 추진

*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는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담합할 경우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아직 의회에서 未통과

○ 소규모 거래에서는 비달러화 석유거래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, 달러 기반 거래 시스템의 근간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

- 러시아 등 반서방국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호국 통화로 석유를 거래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비달러화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
- 그러나 ▲대부분 산유국들에 있어서 석유판매가 거의 유일한 달러 수입원이라는 점 ▲견고한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 ▲국제통화로서 위안화의 한계 ▲비달러화 헤지(hedge) 수단 부족 등으로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
- 걸프 산유국들은 자국의 통화가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주요 석유 거래를 비달러화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평가(Energy Intelligence)

○ 다만, 반서방국 뿐만 아니라 비서방국들의 비달러화 석유거래 참여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

- 석유거래에서의 脫달러화(De-dollarization) 이슈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서방의 제재 대상 국가(이란, 베네수엘라)에 한정되거나 정치적 목적(※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)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미미

- 최근의 脫달러화는 세계 3대 생산국(러시아)과 1위 수입국(중국)이 주도하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 등 비서방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이고, 달러화 익스포져* 축소라는 경제적 목적도 배경으로 작용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
 - *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들은 석유 등 원자재 수입 부담 및 달러 표시 부채 부담 증대. 이는 미국에 우호적인 신흥국들도 달러 의존도 축소에 나선 배경(Aljazeera)
- 비달러 석유거래를 늘리고 있는 당사국들이 관련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결제 채널 마련에 나선 가운데, '15년 출범한 중국의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*(CIPS)은 위안화 석유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전망(Reuters)
 - *지난해 CIPS를 통한 결제금액은 87조위안(\$14조)으로 전년 대비 21% 증가(PBOC)
- 사우디는 정치적·경제적으로 달러 외 석유결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나 對中 원유수출 비중*, 중국의 투자 확대 제안 등을 감안하면 위안화 결제를 일부 시행할 가능성. 이 경우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
 - * 사우디의 국별 원유수출 비중('21년, 금액 기준) : 中 28%, 日 16%, 韓 13%, 美 6% 등(OEC)

□ [시사점] 비달러 석유거래의 증가는 국제석유시장은 물론 글로벌 정치·경제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그 파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

- 국제석유시장의 핵심 메커니즘인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릴 경우 가격발견(price discovery) 기능이 약화되고 헤지 등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
 - 비달러화 거래가 주로 위안화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위안화 환율 변동 등 China Exposure는 국제석유시장에 또다른 리스크가 될 소지
- 석유시장에서의 脫달러화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달러화의 위상과 기축통화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
 - 페트로달러는 달러화 기축통화 시스템에 있어서 보험의 역할. 그 기능이 약화될 경우 기축통화 시스템의 붕괴가 시작될 것임(Institute for the Analysis of Global Security)
- 비달러화 석유거래의 증가는 서방과 반서방 간 충돌의 결과인 동시에 향후 양 진영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경제블록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31 혹은 js0h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